

세계 최초로 초강력 눈부심 방지 커버글라스 출시

쇼트코리아(주)

회사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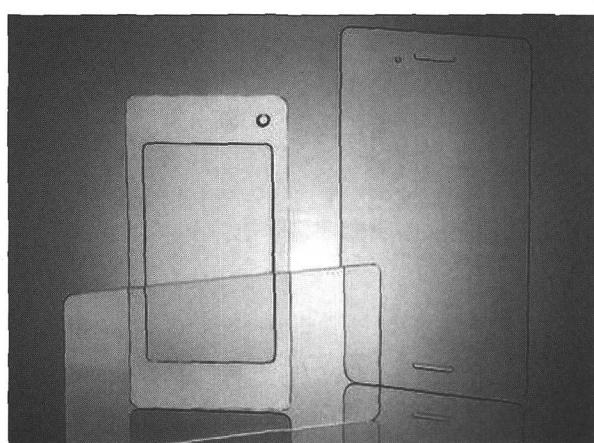
세계적인 특수 유리 제조업체인 쇼트(SCHOTT, 본사: 마인츠, CEO: 우도 응게호이어)는 세계 최초로 뛰어난 강도 및 손상 방지는 물론 눈부심 방지 기능까지 갖춘 커버 글라스를 선보였다. 이처럼 새롭게 개발된 ‘센세이션™ 커버 AG(Xensation™ Cover Anti-Glare)’는 고해상도에서의 반사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.

제품 특징 및 관련 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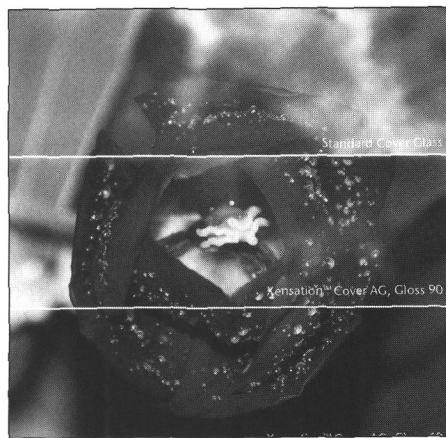
쇼트는 손상 및 긁힘 방지에 뛰어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, 게임기 등과 같은 터치 스크린 장치를 위한 제품을 더욱 이상적으로 개발하여 고성능의 초강력 알루미노-실리케이트 글라스 제품에까지 제품군을 넓히게 되었다.

이번 쇼트의 센세이션 커버 AG는 기존의 센세이션 커버에 유리 표면 가공 전문기업 베르리너 글라스(Berliner Glas)가 개발한 맞춤형 에칭 기술이 더해져 위의 기능을 모두 충족시킬 뿐 아니라, 기존 고강도 유리에서는 불가능했던 획 일적이면서도 결점 없는 무광 유리표면을 갖추게 되었다.

쇼트 센세이션(Xensation™) 브랜드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 책임자 루츠 그뤼벨은 “센세이션 커버 AG(Xensation™ Cover AG(Anti-Glare))는 연속 공업용 규모 공정 과정을 통한 재생처리 에칭으로 유리표면에서 이온을 빼내 무광택 마감처리 한 세계 최초의 초고강도 알루미노-실리케이트를 써운 유리”임을 강조하면서, “이 새로운 에칭 방법을 완전히 최적화시켜 기존의 센세이션 커버의 강도 및 긁힘 방지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 또한 개선시켰다”고 덧붙였다.



▶ 쇼트 ‘초강력 눈부심 방지 커버 글라스’



▶ 맨 위부터 일반 커버 글라스와 광택 값이 90과 60일 경우 비교 사진이다.